

시장 ‘부드러운 리더십’... ‘간보는’ 공무원들

■광주시 공직기강 해이 심각

권한 양보 했더니 甲질

일부간부 인사특권 누려

조직 다잡기·재정비 필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에 막혀 고전하고 있다.

시장이 지시를 해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공무원, 시장이 내려놓은 특권을 대신 누리는 공무원, 낮은 곳부터 살펴보고 했더니 ‘슈퍼갑(甲)’질을 하는 공무원 등이 광주시정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어서다.

윤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며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시장의 권한도 공무원에게 대폭 양보했지만 되레 독이 돼 되돌아 오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윤 시장의 소극적인 시정 내

조직정비와 산하기관 인사 등이 주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윤 시장의 부드러운 성격을 악용한 일부 간부급 공무원의 안이한 업무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윤 시장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직 재정비와 다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선 6기 들어 시청조직의 기강해이 사례가 봇물을 이루면서 ‘민선 5기보다 더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게 일렀다고 보복(?)나선 공무원=광주시와 전경력이 지난해 6월 16억원을 들여 첨단지구에 문을 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건물 곳곳

이 누수되고, 내부 벽은 곰팡이가 점령하고 있다. 화장실은 하루에 수차례씩 막히는 탓에 사용금지 팻말이 붙었다.

부실공사가 분명했지만, 광주시는 되레 위탁운영을 맡긴 대학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건설업체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짜증만 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시로 올려대는 화재경보기다. 놀란 어린이들이 울어대는 통에 전원스위치를 꺼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건설업체, 소방당국 모두가 대책이 없다고 방치하면서 100여 명의 아이들은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후 어린이집은 전경과 벽지 일부가 바뀌었다. 하지만 또 다른 악몽이 덮여왔다. 담당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위탁 대학에도 제대로 운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성격이 좀 이상하다’는 헐뜯기도 서슴치 않았다. 패심죄에 걸린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을 맡은 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냈다. 개원 1년 6개월만에 2명의 원장이 그만두게 됐다.

◇‘시민시장’ vs ‘슈퍼갑질’ 공무원=광주시 소유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A업체도 요즘 고민이 많다. 위탁운영 중인 건물 일부에서 지붕누수가 심해져 시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묵살하고 있어서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로부터 공사입찰을 따낸 B업체도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공사착수를 위한 선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장이 내려놓은 특권, 대신 행긴 공무원=광주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한 국장급 간부의 시청 내 별명은 ‘완장’, ‘상왕’ 등 다양하다. 이 간부는 사석 등에서 “내가 이미 (윤) 시장의 마음을 얻었다”고 호언하며 인사 등 시청 곳곳을 간섭하고 있다.

시정 간부와 시장 측근들은 “누가 시장인 지 모를 정도로 전횡이 심각하다.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속삭일 뿐 윤 시장에게 이를 직언하는 이는 한명도 없다. 윤 시장이 ‘완장’을 포함한 극히 일부 간부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수도권 기업 등 12개사 대표들은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호텔에서 열린 광주시 투자환경설명회에서 투자액 738억원, 신규고용 2000여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민선 6기 첫 투자설명회 ‘대박’ 실투자 위주... 12개업체 738억원 협약

광주시가 민선 6기 첫 투자설명회에서 전국 12개 기업과 73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유치 실적은 기존 ‘실적쌓기용’ 투자유치가 아닌 실투자 위주로 협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23일 “이날 오후 서구 상무지구의 한 호텔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12개 기업과 73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환경설명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성봉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기업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에 투자한 기업들의 성공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분양 중인 진곡산업단지 등을 공개하는 등 광주의 투자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큰 호응을 얻어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이 3개 업체, 관내 신·증설이 9개 업체이며, 업종

별로는 자동차부품업체가 7개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LED·새시제조분야 등의 순이었다.

투자액은 타 지역 기업인 ㈜정진멀티테크놀러지, ㈜파비나인, ㈜금강창호기공 등 3개사가 190억원을, ㈜두현정공, ㈜한동테크, ㈜SDM, ㈜한영피엔에스, ㈜대신테크, ㈜무등기업평동 등 관내 신·증설 9개 업체에서 54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민선 6기 투자유치 방향을 ‘실투자율 높이기’로 정하고,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큰 3500여개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상담,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떡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당당해질 수 있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아셈문화장관회의 유치전 본격 돌입

광주시가 한국 개최가 확정된 ‘2016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문화장관회의’<광주일보 23일자 1면>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이 되는 해인 2016년 9월 문화전당에서 문화 분야에 특화된 최대 규모의 다년간 장관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며 아셈유치 의지를 밝혔다.

또 “해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광주를 방문하는 기회를 활용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문화전당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만찬을 제공하고 광주권 도심관광 투어를 지원키로 하는 등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광주국제비엔날레, 세계아리랑축전, ACE Fair 등 주요 행사를 연계, 컨퍼런스와 문화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셈문화장관 회의 유치 과정에서 국제행사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한·중앙아시아, 한·동남아시아,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세계한상대회 등을 광주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부동산 매각 난항... 전두환 추징금 징수 절반 그쳐

2205억원중 1118억원 남아... 검찰 “은닉재산 계속 추적”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추징금 징수의 고삐를 죄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의 절반가량인 1087억원(49%)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118억원이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는 32%인 554억원이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고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지난 6일 공매 처분한 한남동 신원들

라자 빌딩(1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유찰 등을 이유로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전씨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세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다.

또 미국 법무부의 협조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72만1951달러(7억5000여 만원), 전씨 며느리 박상아씨의 미국 투자이민 자금 50만 달러를 압류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에 온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와 함께 해당 압류 재산의 구체적인 환수 절차를 협의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은퇴진단은 토끼처럼 빠르게!
은퇴준비는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자산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점검해주는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 모두의 은퇴 파트너 KB골드라이프

-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해 노후를 설계합니다
- KB골드라이프 특화영입점
전국 55개 특화영입점의 노후설계 Master가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KB골드라이프 Day, 아카데미,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를 전합니다
-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준비하는 KB골드라이프 예금/적금, 예저 점검해 노후를 위한 'KB국민연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개개의 모든 예금(예대입금 포함)의 합계액인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은행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우편 또는 고객센터(1577-0114)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